

■ 미국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COP29의 기후변화 대응 추진력 약화

-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COP29가 개최되었으나,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추진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됨.¹⁾
 - COP29를 채 1주일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당선된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와 글로벌 기후외교 무대에서 후퇴를 공약으로 내세웠음.²⁾
 -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전 세계적인 협력을 약화시키고, 이미 신뢰를 잃어 가고 있는 글로벌 기후협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동시에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후재정 지원과 더불어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됨.³⁾
 - 미국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에 핵심이 되는 세계은행의 최대 기여국이며, 미국과 중국의 기후 협상은 양국 간 합의를 이끌어 내고 2023년 COP28의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합의와 같은 세계적인 결의에 도달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어 왔음.
 - 또한 미 정부는 외교력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활용해 보다 큰 기후 합의와 배출량 감축 목표를 이끌어낸 바 있음.
 - ‘천연자원보호협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의 Jake Schmidt는 미국이 기후 외교를 견인하지 않는다면 기후재원과 대응조치 마련에 대한 압력이 분명히 약화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특히, 미국이 다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한다면, 지구온도 상승을 1.5°C 이하로 억제하려는 전 세계적 목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미국은 과거에도 국제적 기후재정 지원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기후 리더십에 대한 다른 국가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임.
 -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전환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이 더해졌다는 평가도 나옴.⁴⁾
- 한편,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COP29에 참석한 일부 외교관들도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감축함으로써 미국의 공백을 메우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⁵⁾
 - Simon Stiell UN 기후변화 책임자는 COP29에서 중국을 뛰어난 기후 실세라고 칭송하고, 보다 높은 목표가 투자를 주도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음.
 - 이에 대해 자오잉민(Zhao Yingmin) 중국 생태환경부 차관은 지금까지도 자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크게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1) BNEF, 2024.11.8.

2) New York Times, 2024.11.24.

3) BNEF, 2024.11.8.

4) New York Times, 2024.11.24.

5) Politico, 2024.11.22.